

김종율 애플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인터뷰

“문화전당, 2015년 상반기 반드시 개관”

김종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에 맞춰 2015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10일 광주시 동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회의실에서 광주일보 기자와 만나 “전세계 대학생들이 광주에 오는 하계 U대회에 개막에 맞춰 문화전당을 개관하면, 국제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 연말까지 서울에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인력이 모두 광주에서 상주하면서 전당 완공, 개관 콘텐츠 준비를 위해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단장과 일문일답.

—문화전당 완공 시기와 개관 일정은.

▲광주 시민들과 약속인 만큼 내년 말까지 전당을 완공할 것이다. 올해 전당 건립예산 1100억원을 효



율적으로 집행하고, 계획대로 공정이 진행된다면 건립에 장애는 없다. 현재 공정률은 48%로 문화전당의 창조원, 예술극장, 아시아문화정보원 등의 골조 공사는 지난해 말 끝났다. 옛 전남도청,상무관 리모델링

작업도 2014년 말까지 마친다. 개관 목표 시점은 2015년 상반기이다. —문화전당의 문화 콘텐츠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콘텐츠 구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콘텐츠의 내용을 다듬어가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올 연말까지 전 직원 광주 상주 개관 준비

U대회 개막 맞춰 시너지 효과 일어날 것

다.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콘텐츠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향후 3년간 안정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 재원확보를 위해 광주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재정부 들어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축소·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우

려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창조적 문화콘텐츠 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관건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모든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일반적인 미술 전시공간을 전당 내에 두는 것은 문화전당 건립 취지에 맞지 않다. 문화전당에 복합전시관 이외에도 전시공간이 많은 만큼 고유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전시·순회전시 등 미술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추진단의 올해 역점사업을 꼽는다면.

▲당장 이번 달부터 매주 2~3일 동안 머물면서 현장에서 전당 건립 공정을 챙기고, 개관을 준비할 계획이다. 서울에 있는 추진단 인력도 연말까지는 모두 광주에서 상주하면서 문화전당 사업을 챙기게 된다.

올해는 콘텐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을 수립, 전당 개관 전까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사진=김진수기자 song@

기자 노트

광주·전남 힘 모아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지역 숙원사업을 챙기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역사업의 반영을 위해 타지역과 공동으로 인수위를 공략하는 ‘적과의 동침’ 전략도 불사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일찌감치 ‘KTX 호남선 노선 서대전역 포함’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구와 광주는 동서 화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88올림픽 고속도로 적기 준공’과 ‘대구~광주 간 철도신설’ 등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극명한 정치색을 드러낸 지역끼리

도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과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 등 각종 지역현안이 대선공약으로 묶여있어 그 어느 때보다 상호협력의 절실한 때다. 특히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가뜰스나 인수위원회에 호남출신이 적은 상황에서 양시·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양시·도는 ‘국립공원 무등산’의 개발방식을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와 환경부는 지난 12월 27일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 발표와 함께 2017년까지 972억원

을 투입해 무등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탐방객의 편의시설 등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말이 없던 전남도가 최근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광주시와 조율 없이 단독으로 무등산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물론 케이블

카의 경우 그동안 일부 예산 노약자와 장애인,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관광객 유치에 위해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결국, 전남도는 대선 후 참제한 지역민심과

물가상승, 맹주 등 각종 악재 속에 그나마 지역민에게 ‘힐링’을 준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대해 축하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주범으로 몰리고 말았다.

광주·전남 시·도민들 사이에는 대선 후 박 당선인의 대통령 약속에도,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양시·도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이라는 단결의 기회를 지역갈등이라는 위기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lucky@kwangju.co.kr



박진표
정치부 기자

총리 인선 기류변화... ‘능력’ 최우선

권력기관장에 호남인사 등용론

국정원장 김장수, 검찰총장 소병철·주철현 물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호남인사를 총리로 기용하지 않는 대선 권력기관장이나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주요 부처 장관으로 발탁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호남인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10일 박 당선인 측 인사들에 따르면 반드시 이런 흐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 측근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호남 출신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지역을 안배한다고 일부러 더 뛰어난 사람을 두고 출신지를 골라 박 당선인이 다른 사람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호남총리론’과 관련, “당선인

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인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를 통해서 특정지역 인사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도 있지만 인력풀을 특정지역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며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은 능력 있는 사람을 지역과 계층에 관계 없이 찾고 찾고 또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신지보다는 첫 정부의 내각을 이끌 적임자로서 능력을 볼 것이라는 뜻이다. 부산 출신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울 출신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로 흐른다면 감사원장·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철청장 등 5대 권력기관의 장으로 호남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상징성이 강한 총리보다는 권력기관장

에 호남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배려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정 대상자 추천을 받기로 한 검찰총장 자리가 가장 관심사다. 현재 후보군 중 호남 출신은 15기 고검장급에서 소병철(55) 대구고검장과 역시 15기인 주철현(54) 대검 강력부장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의 경우 참여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내고 현재 인수위 외교국방 통일분과 간사로 있는 김장수 전 의원의 기용설이 많이 나온다. 김 간사는 광주 출신이다.

이와 함께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나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의 수장에 호남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 지적돼 박 당선인 주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 당선인, 중특사 접견

중국 정부 특사인 장즈쥔(張志君) 외교부 상무부장으로부터 시진핑 중국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통일동 금융감독원 연수내 집무실에서

“임기말 측근·친인척 사면 중단하라”

야권 “박 당선인 입장 밝혀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야권은 10일 “측근, 친인척 사면을 중단하라”며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 검토에 대해 “이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등 권력남용을 통한 비리 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이번 특사에 소위 친박계 인사들이 포함됐는지, 물밑 협의가 진행됐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도 이날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먹고 뛰는 ‘먹튀 자본’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정권 말기에 풀어주고 뛰는 ‘풀튀 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국회 정치채신특위에서 사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강병기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철저·한·독일 인의·장인·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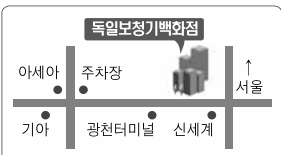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경매 · 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아지않고선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원)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通... 하십시오!



더 신뢰있고 더 좋은 정보를 방문하신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목욕탕 매매

1만5천여 세대 독점 성업중인 최신회원 목욕탕, 높은 수익률

대 지 2,480㎡(750평)
건 물 4,460㎡(1350평)
용 자 20억~25원 까지
매매가 40억원 (감정가 58억원)
실 준비금 15억~20억원 까지
행운공인중개사 011-642-7777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금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당후 결정

염전 금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당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어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권 및 시외순원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